



정부수 1995. 9

통권 82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1998. 8. 22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용주 나올 때까지 함께 할께요!”

85년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양심수 가운데

이번 사면에서 출로 제외된 강용주(전남대 의대)씨 어머니 조순선씨(72세)가 8·15 사면 명단이 발표된 8월 14일,

같은 사건으로 복역하다 이번에 풀려나게 된 김성만씨 어머니 최인화(원쪽)씨와

황대권씨 어머니 정동희(오른쪽)씨한테서 위로를 받고 있다. (권현기사 12쪽)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02-763-2606, 765-5282 Fax. 745-5604

정부수립 50돌을 맞는 8·15 광복절 사면 발표를 접하고 우리는 착잡한 심정 가눌 길 없다.

정부수립 50돌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시대를 벗어나 국민주의 국가를 수립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정부는 '제2의 건국'을 제창하고 있다. 이제

분단 50년을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는 지

금 정부가 주창하는
'제2의 건국'이 개혁에서 출발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개

혁의 첫걸음은 과거 분단과 독재체제가 만들어낸 상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구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극복하는 것이

라 믿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수립 50돌 사면조치가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양심수를 대거 사면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양심수를 그대로 감옥에 두고 12·12 및 5·18 관련 혼정파괴 사범들과 비리 정치들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조치가 되어버린 탓에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8·15 사면조치는 전체 양심수 455명 가운데 불과 94명만을 끈 정도에 그쳤고 사면 형식 또한 형집행정지 25명과 가석방 69명, 감형 9명 등 사실상 사면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치에 그쳐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수감중인 우용각씨(41년째 구금중)를 비롯하여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산 27년 보다 더 오랜 30년, 40년 세월을 갇혀있는 초장기수 17명이 한 사람도 풀려나지 못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다 공민권을 박탈당해온 민주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단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정권교체를 환영했고,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세워지길 염원해온 우리들은 사면의 의미가 단순히 시혜나 은전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법집행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고 인권의 회복이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맡고 있는 지금, 진정한 '국민대화합'을 이를 수 있는 첫걸음은

대다수의 양심수를 감옥에 그대로 두고,
12·12와 5·18 혼정질서 파괴범과 비리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8·15 특사조치에 분노한다!

360여 양심수를 전원 조건없이 석방하라!

라 믿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수립 50돌 사면조치가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양심수를 대거 사면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양심수를 그대로 감옥에 두고 12·12 및 5·18 관련 혼정파괴 사범들과 비리 정치들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조치가 되어버린 탓에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8·15 사면조치는 전체 양심수 455명 가운데 불과 94명만을 끈 정도에 그쳤고 사면 형식 또한 형집행정지 25명과 가석방 69명, 감형 9명 등 사실상 사면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치에 그쳐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수감중인 우용각씨(41년째 구금중)를 비롯하여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산 27년 보다 더 오랜 30년, 40년 세월을 갇혀있는 초장기수 17명이 한 사람도 풀려나지 못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다 공민권을 박탈당해온 민주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단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정권교체를 환영했고,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세워지길 염원해온 우리들은 사면의 의미가 단순히 시혜나 은전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법집행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고 인권의 회복이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맡고 있는 지금, 진정한 '국민대화합'을 이를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과거의 제도와 악법으로부터 생겨난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수배해제, 그리고 그동안 공민권을 박탈당해 왔던 민주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 복권조치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는데 서약제도를 거부한 사람들을 모두 이번 8·15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준법서약 제도 자체가 비인도적인 제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하면서 준법서약제도로 인간을 이간질시키고 사면의 기준을 서약자와 비서약자로 가르는 것이 무슨 화합조치란 말인가.

더구나 12·12 및 5·18 관련 현정질서 파괴범들을 모두 사면하면서 이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한 마당에 종범에 불과한 그들을 사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율배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구미유학생 사건 관련자인 강용주 씨와 사노맹 사건의 현정덕씨 등 대다수의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켜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조치로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준법서약, 풀려난 사람도 풀려나지 못한 사람도, 그리고 우리들의 석방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싸워왔던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위한 것인지, 이러한 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이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냉전이 끝나고 이제 21세기의 길목에 선 이 시점에서, 인간의 내면세계까지 관리하려는 독재시대의 발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는 일이다.

다시 한 번 정부당국에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훌릴 눈물도 기대할 희망도 사라져 버렸다는 양심수 가족들의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세계최장기수 우용각씨를 비롯한 360여 모든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전면적인 사면복권,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하면서 준법서약제도로
인간을 이간질시키고
사면의 기준을 서약자와
비서약자로 가르는 것이
무슨 화합조치란 말인가.

1998년 8월 17일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8월 양심수 석방 캠페인 특집 1

명동에서 보내는 사흘 밤, 낮

강은지(희원, 23세)

98년, 명동성당에서의

양심수 석방을 위한

8월 6, 7, 8일 사흘동안

캠페인은

하늘과 마음이 함께 숨죽여

울던 비로 시작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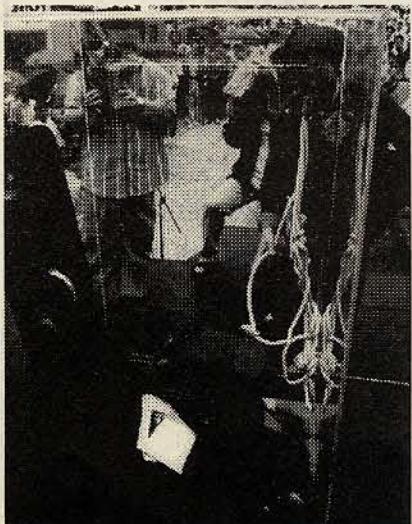
비로 끝을 맺었다.

8월 6일 첫째날, 밤새 퍼붓는 비속에서 감옥설치 등 준비작업을 마친 사람들은 그나마 가늘어진 빗줄기에 감사하며 분주히 뛰어 다니는 동안 캠페인의 막이 오른다.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선포식이 열리고 바로 이어지는 퍼포먼스 '인권타임 캡슐'. 투명 아크릴로 만들어진 타임캡슐안으로 그동안 인권을 침해해온 상징들(모형 감옥, 수의, 포승, 칠성판 등 고문도구,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제등 악법과 최루탄, 분사기, 방패, 진압봉 등 경찰 폭력 도구들)이 타임캡슐안으로 묻혀졌다. 다시는 이땅에 인권침해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을 담아. 그리하여 50년 후인 2048년 8월 6일, 양심수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을 미래의 아이들에게 '신기한' 선물이 되기를 기원하며. 고난과 희망의 상징인 보라색 천을 힘겹게 감아감아 옮부짖던 퍼포먼스 위로 모두의 소망이 함께 모인다.

연이어진 하루감옥체험. 언뜻 들여다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하고 막힐 듯한 0.75평 모형감옥. 거기에서 사람이 살고 있단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그 고통을 기꺼이 함께하고자 달려온 익숙하지만 낯선, 그러나 고마운 얼굴들 - 영화배우 김혜수, 명계남, 박광정, 과재구 시인, 신현림 시인, 박주현 변호사, 박상환 교수.

▼ 인권 타임 캡슐



굵은 창살너머 하루감옥 체험자들이 바라보는 하늘은 여전히 비를 가득 머금어 흐리고, 갇힌 이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시는 보라색 수건을 질끈 동인 어머니들은 양심수를 대신해 힘든 몸싸움을 하루종일 계속하신다. 정말 작은 권리들밖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권리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것!, 사람들과 마음껏 이야기 하고 싶다, 몇발자욱 걸어도 감옥 창살이 버티고 서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마음껏 저 밖에서 걸어보고 싶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식사를 안하고 싶다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위해 징벌을 각오하고 싸워야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하루가 흐른다.

오후에는 명동성당 입구에 걸어놓은 징이 세번씩 크게 울릴 때마다 저마다 가슴에 쌓인 이야기를 한자락씩 풀어놓으며 정부에 인권개혁을 촉구하는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국민의 정부'답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

책을 펴리는 목소리가 명동성당 십자가 위로 울려퍼진다.

'석방하라, 석방하라!' 갑자기 하루감옥을 둘러싼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한참 울려퍼지니 녹슨 자물쇠 소리와 함께 감옥 문이 활짝 열린다. 보라색 수건의 어머니들 얼굴이 일순 감옥 문처럼 환하게 펴진다. 저렇게, 굳게 닫힌 감옥문이 열린다면, 우리의 소리가 모이고 모여 저렇게 문이 활짝 열린다면.



명원이. 태어나기 두달전에 끌려간 아빠를 기다리는 올해 열세살 난 아이. 명지, 명지에게 아빠를 둘려달라는 눈물젖은 호소를 하는 엄마를 볼들고 이쁜 얼굴로 웃고 있는 명지… 오늘 240회 목요집회는 창실안의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소원을 담은 “아빠 보고싶어요” 집회다.

꽃다지, 이정열밴드, 노래마을, 가극단 금강, 권진원, 장필순 등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아름다운 노래로 함께한다.



▲ 하루감옥체험 참가자들

“이런 자리에 서면 아버님 생각이 너무도 간절해 자리를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대통령에게 호소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밤사이 끌려갈까봐 사람들 돌아가며 불침번을 섰던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간곡히 말씀 드리면서 큰 절 올리겠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비를 피하지 않은채 행사를 진행했던 문성근(영화배우)씨가 큰절을 하는 동안 모두의 간절한 소망도 비가 되어 흔든다.

8월 7일 둘째날. 아침 열시. 오래만에 만나는 따가운 태양. 오늘의 하루감옥체험자는 차병직 변호사, 박기형 영화감독, 화가 윤석남, 종교인 이정택, 김윤식, 그리고 오전방송을 마치고 달려온 방송인 배유정.

여고괴담 감독인 박기형씨는 허락받지 않은 유인물을 가지고 있다고 온몸을 끓이는 징벌을 받아야 했다. “상식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좁은 공간에서 양심을 버리지 않는 양심수들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한 박감독은 교도관들에게 결코 무릎을 굽히지 않았다. “징벌 풀어라!” 감옥을 에워싸며 교도관들과 거친 몸싸움을 하던 어머니들 덕에 징벌이 풀어졌다.

뜨거운 햇볕과 쏟아지는 빗줄기가 계속 자리바꿈을 하고 천막안으로 피해들어갔

▼ “아빠, 보고 싶어요”



던 양심수들의 자녀들은 이다음에 엄마, 아빠랑 살고 싶은 '희망의 집'을 그려 모형 집을 만들고서는 그 집을 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돈다. 아이들의 해맑은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다시 감옥문은 열리고 하루 동안의 힘든 시간이 준 기억들을 가슴에 새기고서 체험자들이 세상속으로 걸어나온다. "그들을 잊고 살았었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게, 부끄럽습니다." 고운 목소리의 배우정씨. "이삼십년 반평생 보내는 분들에 비하면 형식적이죠. 준법서약도 서약을 강요하는 것인데 정작 써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변호사 등이 준법서약을 해야 합니다." 차병직 변호사.

행사 당일까지 신청문의가 빗발쳤던 '양심수를 위한 시민가요제'. 아마츄어들의 진정한 페스티벌, 양심수의 자유를 염원하는 보통사람들의 잔치. 김정환, 오숙희씨의 사회, 참가자들의 정열 넘치는 무대, 한국대중음악 평론을 대표하는 강현, 임진모, 이영미, 성우진씨와 성우제 시사저널 기자, 주철환 MBC PD가 심사, 열광적인 응원! 시민가요제는 몸을 때리는 비속에서도 명동성당 들머리를 사람들로 꽉차게 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자유~" 안치환의 노래는 미침 쏟아진 비와 묘한 조화를 이루며 한폭의 그림 같았다. 모두 18팀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 결국 동부문화센타 '노래로 크는 나무'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참, 96년 시민가요제에서 "우리 아들, 빨리 보고싶어요." 하며 '반달'을 불렀던 고봉희 할머니는 올해는 아들 신인영(3월 13일 석방, 골수암 투병중)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올라오셨다. "이렇게 우리 아들 같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샛별같이 등대같이 살라고 불리주시던 노래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손을 꼭 붙잡고 '반달'을 부르셨다.

8월 8⁰' 셋째날, 그리고 마지막 날, 비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은 듯 싶다. 입소식때도 그칠 줄 모르던 비는 기어이 감옥 안으로 쳐들어간다. 한국방송 PD연합회 장해랑 회장이 교도관을 향해 "아무리 교도소라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이어야지, 이게 됩니까?" 거친 항의를 하지만, 창살 사이로 들어가는 비는 어찌할 수 없다. 최일숙 변호사, 언론노련 손석준 위원장, 기자협회 조성부 회장, 소설가 박범신, 녹색연합 장원, 만화가 정훈이. 감옥안까지 스며든 비는 한사람 눌기도 벅찬 감옥안에 그나마 앉을 자리마저 빼앗아가려들고 하루 십분, 운동할 시간마저 갖지 못한 체험자들은 달그락, 달그락 물을 펴내면서 하루는 힘들게 기억된다.

밖에서는 이 비로 수해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비가 그친 듯해 긴장을 풀라치면 이내 다시 양동이로 들어붓는 듯한 비가 내린다.



▲ 양심수를 위한 시민가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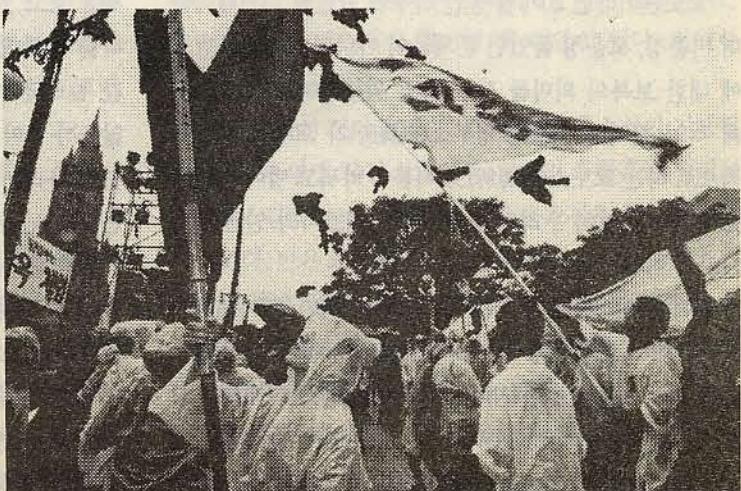


오후가 되니 그 비 사이를
뚫고 명동성당에 모여 있던 보
라색 수건에 푸른 수의를 입은
어머니들과 학생들, 시민들이
하루감옥 앞에서 양심수를 석
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무대
위에서는 모두를 울리고야 마
는 사회자의 연설이 시작되었
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수척
한 자식의 몸을 가두고 있는… 그 푸른 수의를 어머니들이 지금 입고 계십니다. 다시는
입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이 수의를 오늘 우리가 다시 입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수의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이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옷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 40년이 넘도록 이 수의를 입고 있는 우용각 노인을 비
롯한 수많은 양심수들을 생각하며, 어머니들이 입고 계신 이 수의를 벗어 던져주십시
요. 굳게 닫힌 감옥문이 활짝 열려 450여 양심수가 전원 나오는 그날을 생각하며 푸른수
의를 날려버립시다.” 순간 어머니들을 감싸고 있던 푸른 수의들이 하루높이 날아간다.
그위로 꿈인 듯, 환청인 듯 “우용각 석방, 석방, 석방” 외침이 겹쳐 흐른다. 비는 쉬지 않
고 내리는데. “여기 모인 우리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8.15 사면에 모든 양심수들이
조건없이 석방되어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비는 마침내 가슴에도 한가득 넘쳐 흐른다.

폭우로 여기저기 교통이 마비되고 있다는 어지러운 소식과 함께 명동성당에서의 캠
페인도 막을 내린다. 캠페인의 대미를 장식할 행사, 콘서트 ‘양심수가 없는 나라’는 출
연진들이 거친 폭우를 헤치고 하나둘 명동성당으로 와지만 행사를 계속할 수 없어 참으
로 아쉽기 그지 없었다. 남는 아쉬움을 딛
고 다시 첫마음으로 시작하라는 하늘의 가
르침인가. 그렇지. 산을 오르다보면 맨 꼭
대기에 오를 때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가파르기도 하거니와 꼭대기를 바라
보는 순간, 왜그리 피곤이 몰려오던지. 우
리 역사도 이런 것일까. 정권교체 되었지
만 넘어서야 할 산이 더 많은 것 같다. 그
래도 길은 꿈꾸는 자에 의해서 열린다고
했으니, 나는 여전히 보랏빛 수건을 벗지
못하신 어머니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 것
이다. 비록 더덜지라도!





십년같은 하루

이주형(전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이 살다보니 내가 전과 2번의 '뻥잡이'였다는 기억이 시나브로 흐려지던 8월초…… 서울에서 걸려온 괴전화는 고요하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여보세요, 주형이, 아니 이주형씨죠? 여기 민가협입니다."

민가협? 출소한 이후 인사 한번 드리지 못한게 못내 마음에 걸려 있던 터라 일순 긴장이 된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잘못 걸렸다 싶었지만, 아 어찌하리요. 이건 순전히 감옥갔다온 내 탓이오 할 밖에!

교도관이라면 20개월 동안 하루에 한번씩 티격태격하며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존재들이 아니던가. 사실, 범죄에 대한 보복의 의미를 갖는 형벌 위주의 행위, '옹보주의'적인 격리에 머무는 형무소(刑務所)가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矯導所)로 이름이 바뀌고 법이 바뀐지 오래건만 여전히 우리의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인권은 먼 나라의 이야기 아니던가.

여하튼 여러분도 뻥기는 자리는 아니지만, 민가협에서 하라는는데…… 또 한편, 착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 역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감옥의 실태를 이해하고 그런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30, 40년이 넘도록 갇혀 있는 양심수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가질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예"하고 말았다.

빗줄기가 내리치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파란 교도관 제복을 갈아입고 교도관인 우리는 하루감옥 체험자들을 기다렸다. 하루전 교도관으로서의 임무와 결의를 부여받은 우리의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고 주위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10시부터 6시까지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체험자들이 양심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하려면… 속으로 모질어져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빗줄기를 견뎌낸다. 빗속에서 피어나는 청년교도관의 결심은 장엄하기까지 하다…

첫날 체험자는 명계님, 박광정, 김혜수, 곽재구, 박주현, 신현림, 박상환씨다. 오늘의 요시찰은 다름아닌 명계남씨! 온몸에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냄새…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다. 어찌되었던 저들은 간호자들이고 우리는 흠, 방열쇠를 쥐고 있는 감시자 아니던가?

체험자들의 하루 일정은 10시에 입방식, 12시에 식사, 10분간의 운동과 검방(부정물품이나 흥기를 검사하는 절차임, 교도소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물품 색출)과 정벌절차(재소자 준수사항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진행), 그리고 퇴소로 진행된다. 그러나 교도소가 어디 자기의 안방인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괜히 기분이 이상해져서 자제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유없이 밥을 짖지는 않을까. 통방(옆방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과 몰래 대화하는 것, 그것은 엄격 금지하고 있음)하지는 않을까. 허가되지 않은 불순한 책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교정교화에 반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 운동시간 늘려달라, 면회시간이 짧다는 등 소요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 흥악스런 범죄자들이 말이다. 그러므로 교도관인 우리는 이들을 감시하는데 일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 아닌가.

자! 준비는 다 되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 일단 파란 수의를 입으니 재소자는 재소자요, 우리는 교도관이다. 명계남씨는 내가 전주교도소에 있을 때 함께 생활했던 한 선배와 너무너무 닮았다. 개기는 것까지…

이런! 입방식을 진행하는 데 웃음이 나와? 이제 각오해

라…

처음부터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내 우리만 고생 이야. 뭐 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감옥에는 왜 들어와? 법 지키고 살면 될 일이지. 초전박살!

처음부터 교도관들의 명령에 반항하던 명계남씨는 보안과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체험자들의 얼을 빼놓았을 만한 입방식이 끝나고 관 같은 방 속으로 하나 둘 입방이 완료되었다. 이제 담벼락 뒤에서 담배나 한 대 피워볼까…

“교도관, 교도관. 병원 보내라. 아까 맞아서 갈비뼈 부러졌다!”

아니나 다를까 명계남씨다. 제길…무시하자. 바쁘신 교도관을 누가 불러!

“명계남 병원 보내라! 인권유린 자행하는 교도소 당국 각오하라!”

바로 옆방에 구금되어 있던 김혜수씨가 문을 차기 시작했다. 나는 목격하고야

말았다. 태권도 유단자의 뒷발차기에 무참히 부서지는 교도소 방문을… 잔인한 진압이 시작되었다. 교도관들이 달려들고 포승줄이 묶여지고 방문에는 ‘징벌 중’이라는 글자가 붙어지고… 초반부터 힘을 썼더니 다리까지 흔들린다. 이제 좀 쉴 수 있겠지. 그런데 갑자기 왜이리 시끄럽지? 뭐야 이건?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인권유린 자행하는 교도소장 물러가라!”

꿈에 볼까 무섭다는 보랏빛 수건부대 민가협이 몰려온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던 한총련 학생 등이 몰려온다. 비상이 걸리고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건 장난이 아니네… 민가협 어머니가 바지끈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때리고, 악질 교도관 물러가라고 난리다. 하지만 우리가 열세라 물러설 수밖에… 진짜 말로만 듣

던 민가협의 실체는 가공할 만한 것이구나,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징역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왜 때리십니까? 살살합시다. 끝내 보안과장이 조금 버티다가 징벌을 해제하고 면회를 시켜주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해야 살아남는 우리들……

점심시간이라 배식이 진행되었다. 보리밥에 김치, 된장국, 콩나물 무침이 나왔다. 향기가 구수한 것이 입안에 침이 고인다. 너무 잘 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또 누가 소리지른다. 개밥이지 사람 먹는 밥이냐고 난리다. 나는 아침부터 꼬박 굶었는데…… 단식한다고 난리고. 이렇게 홀

薨한 밥을 안먹고 이유없이 단식을 한다고? 이것은 완전히 ‘재소자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다. 참을 수가 없다! 또 다시 교도관들의 진압과 징벌이 행해지고 민가협 어머니들의 항의 방문이 진행되고…… 또 다시 사건이 수습되고……

운동을 시킬 때 슬그머니 명계남씨에게 담배 한 대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살살 합시다, 서로 아는 처지에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온갖 회유에도 능구렁이 명계남씨는 콧구멍으로 담배연기만 뿜어낼 뿐 대답이 없다. 완벽한 ‘꽝잡이’의 모습이다.

오후 시간이 정리되고 마지막 순서인 출소식이 진행될 무렵부터는 완전 탈진 상태이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목소리도 갈라져서 나온다. 보랏빛 손수건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반은 교도관이 되었나보다.

사람들에 밀려 방문의 문이 열리고 모두들 민가협 목요집회의 무대위에 올라섰다. 이번 특사에서 모든 양심수가 석방된 것처럼 나 또한 기분이 좋다.

오늘 하루가 내게는 십년처럼 느껴진다. 꿈에 아마 보랏빛 손수건이 나풀거리겠지……



명지아빠 보세요.

8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긴 하루해를 보내고 있겠지요. 밥을
제대로 먹고도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
인데 단식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
다.

참으로 가슴 아픈 나날입니다. 지난
3월 13일에도 혹시나 당신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하며 대전교도소 앞에
서 서성이며 애를 태웠는데 8월은 더
욱 나를 힘들게 하는군요. 이렇게 혹
시나 하며 가슴을 태우며 당신의 석
방을 애탏하게 기다린지도 6년이 흘렀
습니다. 그 세월동안 그래도 내게 살
아가는 기쁨이었고 이유가 되어준 명
지는 쑥쑥 자라 7살이 되었구요.

지난번 특별면회를 하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명지가 뭐라고 말하
는지 아세요?

“엄마,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소원
을 들어주지?”

“착한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명지
는 무슨 소원을 기도했는데?”

“음, 우리 아빠 빨리 나오고 엄마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빠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명지가 그렇게 아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정말 처음이
어서 나는 한동안 말문이 막히고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벌써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한편 대견하고 이젠 정
말 아빠가 있어야겠구나 마음 한켠이 쿵하고 무너지는 앙타
까움에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그냥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태어난지 3일만에 끌려간 아빠가 왜 가족과 헤어져 푸른
수의를 입고 있는지 그 이유도 모른채 몇차례 면회 때 만난
것도 쌓은 정이라고 아빠를 저리 그리는 아이에게 이젠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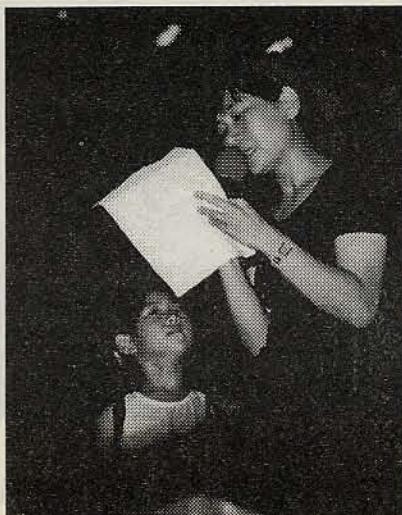


8월 양심 수 턱밥 캠페인 특집 3

명지에게

아빠를 돌려주세요

차정원



하라는 단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온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해하고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양심수 석방에 대한 기대를 안고 새정부 출범에 박수를 보내며 기다렸는데 그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일인지, 이제 당신과 같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준법서약을 쓰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로서는 앞으로의 일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양심수는 말 그대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을 이유로 간힌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고 조건없이 모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6년의 세월도 어렵게 헤치며 살아왔는데... 언제쯤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누구나 바라는 소박한 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고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나누고 아프면 서로 챙겨주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내 꿈은 아직도 너무나 이루어

지기 힘든 것인가 봅니다.

매일매일 간절하게 빌겠습니다. 당신이 하루속히 석방되어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더 이상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가족과 헤어져 고통받으며 갇혀 있어야 하는 양심수가 없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단식이 되도록 빨리 끝났으면 해요. 이런 괴로운 상황이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잘 있어요.

98년 8월 6일 당신의 아내, 정원

- 이 글은 차정원씨가 남편정창호/92년 구속, 12년형, 대전교도소 수감중)에게 쓴 편지로 캠페인 첫째날, 목요집회 “아빠, 보고싶어요”에서 낭독했다.

8·15 사면자 명단 (가석방 69명 / 형집행정지 25명)

● 구미유학생사건

김성민(85년구속·가석방) 황대권(85년구속·가석방) 양동화(85년구속·가석방)

● 납북어부 사건

김정묵(82년구속·가석방), 정영(83년구속·가석방), 이상철(83년구속·가석방)

● 월남자 사건

함주명(83년구속·가석방)

● 일본관련 사건

유재선(83년구속·가석방) 서경운(84년구속·가석방) 이장령(85년구속·가석방) 문철태(85년구속·가석방) 강희철(86년구속·가석방) 김기문(89년구속·가석방)

● 재일교포 사건

김장호(82년구속·가석방) 박수관(83년구속·가석방) 서순택(89년구속·가석방)

● 행불명자 가족사건

진창식(79년구속·가석방) 김태룡(79년구속·가석방) 석달윤(80년구속·가석방) 박동운(81년구속·가석방) 안승윤(81년구속·가석방)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김나중(92년구속·형집행정지) 손병선(92년구속·형집행정지) 심금섭(92년구속·가석방) 황인오(92년구속·형집행정지) 황인욱(92년구속·가석방) 양홍관(92년구속·가석방) 변의숙(92년구속·가석방) 이경섭(92년구속·가석방) 함정희(92년구속·가석방)

● 사노맹 사건

남진현(90년 구속·형집행정지) 박노해(91년 구속·형집행정지) 백태웅(92년 구속·가석방)

● 월북기도사건

최수열(87년구속·가석방) 이재익(96년구속·가석방)

● 방북사건

박영희(방북사건·92년구속·가석방) 김천태(93년구속·가석방)

● 기타

허정길(87년6월항쟁관련·87년구속·가석방)

정화려(구국전위사건·94년구속·가석방) 서래스님(97년구속·가석방) 최봉석(96년구속·가석방)

송유진(방북사건·98년구속·가석방) 강순정(범민련 사건·96년구속·형집행정지)

안종수(북부노동자회사건·97년구속·가석방)

● 학생 석방자

강호진(제주대, 가석방) 박현우(제주대출, 가석방) 신선호(한양대, 가석방) 이오영(명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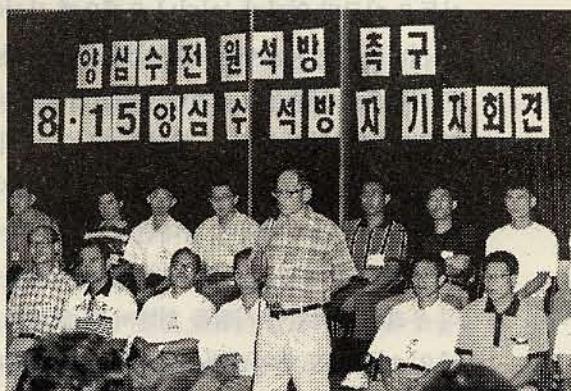
가석방) 이종명(진주경상대, 가석방) 김태규(국민대, 가석방) 송원천(목포전문대, 형집행정

박휴상(전남대, 가석방) 이승재(경희대수원, 형집행정지) 이윤희(공주대, 가석방) 최재혁(중앙대, 형집행정지) 이형민(전남대, 가석방)

이제윤(고려대서창, 형집행정지) 박희정(경북대, 가석방) 안상묵(단국대, 가석방) 정혁남(홍익대, 가석방) 황상우(연세대, 가석방) 정선(덕성여대, 가석방) 김태완(홍익대, 가석방) 박정상(동명전문대, 형집행정지) 박준선(국민대, 가석방)

오민준(조선대, 형집행정지) 오영옥(경북대, 형집행정지) 권영보(경북대, 가석방) 윤재호, 김동, 김태현(이상 부산외국어대, 형집

행정지) 신영관(조선대, 형집행정지) 김용지(단국대, 가석방) 김봉준(부산동아대, 가석방) 최지훈(부산경성대, 가석방)



▶ 지난 8월 15일
풀려난 양심수들이
17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에서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 박은배(청주대, 형집행정지) 윤주형(충북

대, 형집행정지) 고진영(목포대, 가석방) 김종

태(단국대, 가석방) 곽동주(경북대, 가석방) 김

정훈(인천대, 가석방) 박정윤(경희대, 가석방)

김정호(강남대, 형집행정지) 김영복(고려대출,

가석방) 홍성아(경기대수원, 가석방) 송계호

(전남대, 가석방) 박진빈(단국대, 형집행정지)

안혜숙(목포대, 형집행정지) 전행란(목포대,

형집행정지) 이성진(서울시립대, 형집행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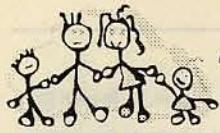
● 8·15 감형자 명단

안재구(구국전위사건·94년구속) 강성일(조선

대) 길소연(한양대) 설중호(단국대 천안) 이호

준(전국대) 장형옥(목포대) 전병모(순천대) 박

수기(전남대)



양심수의 어머니들

편집부

8월 14일 오전 10시.

‘건국 50주년 기념 경축 특사’ 발표가 난 직후 사무실에는 어머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우리 성만이, 성만이가 진짜 나온다는 거지?” 김성만 어머니 최인화씨는 3년6개월 동안 사형수로 지냈던 아들이 감형을 거쳐 이번에 ‘살아’ 돌아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다. 뒤따라 들어서던 황대권 어머니 정동희씨는 나온다는 말에도 14년 세월동안 그렇게 매번 허무하게 기대가 무너져 버린 탓인지 이번에도 영 안심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번씩 되풀이해 물어온다. “정말 나오는 건가… 그런데 용주는 정말 못 나오는 거야?” 어머니들은 14년동안 기다려온 아들들의 석방 소식에도 강용주씨가 함께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듯 했다.

강용주 어머니 조순선씨는 준법서약서 발표를 듣고 안동교도소로 아들 면회를 갔다. 아들은 아무말 없다가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한마디했다. 그 말에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만 아들 이름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선 가슴이 철렁내려 앉는다. 다잡은 마음으로 사무실에 왔지만 김성만씨 어머니가 손을 잡으며 ‘미안해요’ 라며 눈물을 떨구자 ‘미안하긴 무슨…’ 하던 어머니는 애써 참고있던 눈물 보따리를 터뜨리고 말았다. 참고 참았던 눈물,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설새없이 눈물을 흘리는 용주어머니와 함께 김성만씨 어머니, 황대권씨 어머니, 학생 어머니들 모두가 함께 울었다.

‘용주 나올 때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석방운동 할께요’ 성만이 엄마의 한마디, ‘어머니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더 열심히 싸우면 되잖아요. 어머니 오늘만 우셔야 해요’ 너도 나도 한마디씩 용주엄마를 위로한다.

‘나 이제, 안운다. 용주하고 약속 지켜야지. 우리 용주 나올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란다.’

사무실 문을 들어서 눈빛이 미주치는 순간 쓰러질 듯 통곡을 하는 장창준(홍의대 학생)군 어머니 윤달님씨.

평소에 씩씩한 어머니였고, 준법서약제가 발표될 때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아들을 면회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그런 걸 쓰고 나오냐, 다 함께 나오거라” 했다는 어머니. 아들이 준법서약서 쓰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던 어머니였는데… 그러나 며칠전부터 학생들도 나온다는 소식에 시종 마음이 무거워 집에 혼자있을 때면 정신없이 맹하니 앉아있곤 한다던 어머니. ‘내가 창준이를 설득해서 나오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었을까.’ 다른 학생들의 어머니가 손을 잡자 어머니는 더더욱 긴눈물

을 쏟아내고 말았다.

한켠에 조용히 말없이 앉아계신 인천대생 이환영군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학생이고, 이제 얼마 안있으면 나올텐데요. 뭐' 하면서도 한숨을 내쉰다. '준법서약서 이야기를 듣고 고등학교때 자율학습을 떠올렸다'는 환영이는 '강제된 자율학습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석방을 조건으로 강요하는 준법서약서를 쓸 수 없다'며 아들을 이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사무실로 들어선 민경우씨 부인 김혜정씨.

남편 민경우씨가 있는 부산교도소 양심수들이 이번 사면에 대한 입장을 광고에 실어달라고 했다며 '설마 했는데 정말 준법서약서를 안 쓴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냐'며 '우리 경우씨야 얼마 안살았지만 30년, 40년씩 감옥을 산 장기수들은 언제까지 가둬두겠다는 거냐'며 울분을 떠뜨렸다.

아빠가 공부하러 간 줄 알고 있는 올해 6살난 아들 준홍이는 할머니들의 눈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른채 아빠에게 편지를 쓴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빨리 집으로 오세요'

한참 이야기가 오고간 뒤 은재형씨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말고 급히 달려왔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재형이는 다음달이면 만기인데 준법서약서 안썼다고 못나온다니, 노태우, 김영삼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나오는 사람, 못나오는 사람 가족들이 눈물 흘리며 서로 위로하던 사무실은 일순간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양심수를 다 내놓고 싶으며 그냥 깨끗하게 내놓으면 되지. 준법서약이다 뭐다 토를 다는 이유가 뭐란 말이냐, 나오는 사람도, 못나오는 사람도, 또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도 고통이 말이 아니니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야…"

너도 나도 이번 사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그때 어느 어머니, "이번에 석방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석방 운동을 하고 우리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앞으로 나올 사람들은 아무 조건없이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올해 안에 남아있는 양심수를 모두 석방시키도록 합시다."

하염없는 절망감에 빠져있다가도 다시 털고 일어나 갈 길을 재촉하는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이 있는 한 아직도 감옥에 남아있는 360명 양심수들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올해 안에 남아있는 양심수를 모두 석방시키도록 합시다."

하염없는 절망감에 빠져있다가도 다시 털고 일어나

갈 길을 재촉하는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이 있는 한 아직도 감옥에 남아있는

360명 양심수들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법서약서를 안쓰는 이유

강 용 주 85년 구미유학생 사건 구속, 안동교도소 수감 중

사랑하는 어머니!

교도소 담벼락에 붙은 석방자 명단에 제 이름 없어 힘 없이 고개를 떨구었을 어머니,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사람들의 환영인파 속에서 혼자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은 심정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을 어머니,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홀로 면회실로 힘겹게 걸어 오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더질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창을 사이에 두고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채 면회 내내 울고 계셨던 어머니, 13년 감옥살이 그 숱한 면회가 있었지만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당신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아까 면회실에서 못다한 얘기를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준법서약제도가 발표된 지난 7월 초순, 당신께서 조심스럽게 “준법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으셨지요. 그 때 저는 그저 “어머니, 오래 오래 사셔야 해요”라고 밖에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말 없으시더니 오늘에서야 “꼭 그렇게 해야만 했나”고 하셨지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 어머니를 뵈면서 저를 야단치시고 혼을 내시는게 제 마음이 덜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13년전 어머니와 했던 첫 면회가 생각납니다. “전향을 해라. 전향을 하면 나온다더라” 하셨을 때 이 불효자식은 “그런 말 하실려면 다시는 면회도 오지 마세요”하고 면회실을 뛰쳐나갔지요. 그 후로 당신은 전향하란 말, 입 밖에 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전향제도가 두려웠습니다. 86년 무기형으로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15사로 이감갔을 때 전향하지 않는다고 30년, 40년 감옥살이 하던 장기수 할아버지들, 산 송장과 같은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 전향하지 않으면 나 역시 저렇게 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암에 걸린 장기수 한 분이 비

전향수라는 이유로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이 억울한 감옥살이, 전향제도 없어지는 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전향제도 폐지하라고 단식했던 날을 세어보니 200일이 넘었더군요. 저는 저대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맬 때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당신도 끼니를 거르며 지내셨던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지난 5월 19일 20일간의 단식을 끝내며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단식투쟁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2년여 동안 준비했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개인통보권 행사를 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에 전향제도를 시행하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한 것이지요. 국제사회에서 사상전향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고 특히 유엔인권위에서의 폐지권고가 수차례 있었기에 저의 제소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7월 1일 사상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폐지하며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법서약은 또 무슨 소리인가, 이 무슨 해괴 망칙한 발상인가,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물론 전향제도 폐지결정은 이를 위해 노력한 유엔인권위와 국내의 인권 운동가들이 있었고 저 역시 그 대열에 함께 있었기에 우리들 노력의 댓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향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는 못할 망정 준법서약이라니….

그동안 준법서약 문제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인권단체 관계자들, 양심수를 격정하는 사람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가협 어머니들은 혹여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반대 운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서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죄짓고 들어온 사람을 내 보내는데 서약서는 최소한의 요구”라든가, “분단상황에서 보수세력의 빙발이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든가, 서약서는 “안내보내려는 게 아니라 모두 내보내려고 만든 것”이라든가, “전향제도와 서약서는 다르다”든가 등등.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준법서약제도는 사상전향제의 변형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상전향을 거부했던 것은 바로 전향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최고의 절대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의 이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지요. 그러나 서약제도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준법서약을 거부한다고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제’에 해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는 서약서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폭력혁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듯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정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규율은 옳든 그르든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반체제라는 혹백논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준법서약제도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이율배반이 아닌가 합니다.

서약서를 쓰면 나갈 수 있고 어머니 고통도 끝날 수 있을 텐데 저는 도무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준법서약서를 쓸 수 없는가,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게워내고 심사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차라리 서약서에 불

복종하여 계속 강혀있는 편이 제 ‘양심의 법정’에서 몇몇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약서 쓰기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사면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떠드는 무지하고 야만스런 사회,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서약서는 써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형용모순을 지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천박함이 횡행하는 땅에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오척 담 안일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법 지키겠다고 쓰고 나와서 또 활동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할 이도 있겠지요.

어머니, 어쩌면 저는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80년 5월 26일 저녁 계엄군이 진입해 오던 순간총을 들고 도청을 지키던 사람들도 빠져 나올 판에 죽을지도 모르는 도청을 사수하겠다고 들어가 어머니 속을 무던히도 썩혔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앞날이 보장되는 의사되기를 포기하고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재판 받을 때는 검사가 사실인정만 하면 낮은 형을 주겠다는 회유를 거부하여 사형구형을 받고, 무기형이 확정되고 나서는 전향서 대신 생활계획서나 각서를 쓰면 사면시켜주겠다고 했어도 거절한 바보잖아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저이지만 93년에 전향 안하고도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적도 있으니 그것이라도 어머니께 위로가 될까요.

제 만기일인 2006년 9월 22일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일흔 셋의 당신을 생각하면 아려오는 아픈 가슴은 어쩔 수가 없네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제발.

98년 8월 15일

안동에서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용주 올림

그 곳에
천사가 있었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그곳에 천사의 집이 있다.

○○아파트 1004호. 김성희(29) 회원의 집이다.

김성희 회원은 대전교도소 15사(비전향 장기수들이 구금되어 있는 사동)의 유명 인사(?)이다. 장기수 선생님들은 물론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명성은 자자한데, 이는 3·13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신 홍경선 선생님과 맷어 온 남다른 인연 때문이다.

인연의 시작은 우연이었다.

94년 여름, 그녀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학교 선배를 만나고 난 뒤 장기수 선생님에게 편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총학생회 인권위원회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전교도소의 양심수 명단을 건네받아 한 사람을 '찍었다'. 바로 홍경선 선생님이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시작된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가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 김성희 회원에게 찍힘을 당한 (?) 후부터 30년이 넘도록 면회 한 번, 편지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던 홍경선 선생님에겐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생겼다. 철창 너머 바깥세상의 소식을 감칠 맛나게 들려주는 어여쁜 편지 손님. 그것만이 아니었다. 화사한 꽃다발, 먹을거리, 바디샴푸와 오일 등 갖가지 선물보따리가 수시로 날아와 대전의 선생님들을 홍분시켰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과였을 뿐이에요.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수 선생님’ 하면 연상되는 막연한 환상 대신 아픈 역사를 간직한 한 사람의 모습과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일종의 의무감 때문에 편지를 써야 하는 부담감도 없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던 거예요.”

“감옥밖에서 안으로 보내는 모든 것은 모두 교도소측의 검열을 거쳐야 한대요. 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옷을 보내든, 책을 보내든 모든 소포물이 검사를 거친 후 합격(?)해야지만 본인이 받아볼수 있다고 해요. 선생님을 비롯해 그곳에 계신분들은 세상으로부터 30, 40년 세월동안 떨어져 있어서 어쩌면 제가, 선생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 역할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선생님에게 무엇을 보내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래도 세상에는 선생님들의 고난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많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나마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랬지요. 여하튼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보내드렸어요. 물론 그러다보니까, 불합격 되어 제게로 다시 되돌아 온 것들도 있었지만…”

너무 당연한 일 – .

그러나 그녀에게 ‘너무 당연한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하기가 쉽지 않다. 5년여,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녀가 홍경선 선생님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은 정성은 자식을 옥바라지하는 부모의 사랑에 버금간다. 도대체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일까.

“전 굉장히 행복했어요. 무엇보다도 선생님과의 편지교류를 통해 관계가 전면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단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대전의 선생님들과 제 친구들, 그리고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모두 함께 연결되었던 거에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넓어지는 기쁨, 바로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투자한 시간과 열정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쳐지는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할 모습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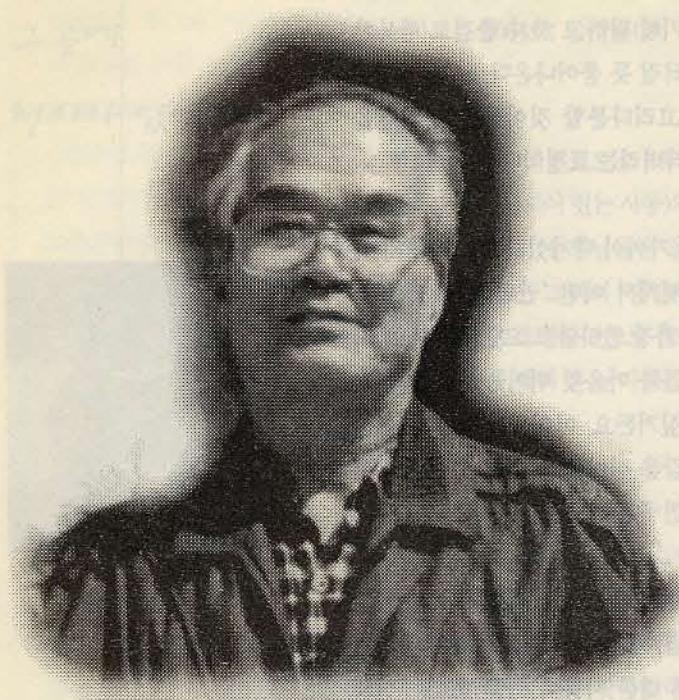
현재 중학교 도덕 선생님이 김 회원. 이렇게 ‘열린 관계’를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실천하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라도 가르침을 받고 싶을 것 같다. 또 어떤 부모이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교직이 천직일 거라고 여겨왔다는 그녀. 그래서일까. 학교 생활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 터질 듯 묻어나온다. 도덕 선생님이라면 고리타분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싹둑 잘라버리는 표정이다.

“나는 가까이 다가섰다고 느끼는데 아이들은 제게서 어떤 ‘권위’를 느끼는 것 같을 때 가장 안타깝고 고민스러워요. 저는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면서 함께 호흡하고 싶거든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존재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천진난만한 선생님, 때론 아픈 매를 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뚝뚝 흐르는 선생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선생님, 재기발랄한 웃음 뒷면에 깊은 혜안을 담고 있는 선생님……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희망을 주고 있는 선생님이다.



31년 옥고를 치루고
비전향으로 출소하신 금재성 선생님이¹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아 오시다
급기야 체장암으로 입원, 투병하시던 중
98년 8월 17일 오후 2시 보라매병원에서
통일세상을 보시지 못한채 운명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옥중동지들의 우인장으로,
화장한 유해를 북한산 향로봉 기슭,
금산사에 안치했습니다.
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고 금재성 선생님 약력

1920년 2월 25일	충남 대전시 삼성동 태어나심	1948년	평양 인민경제대학 입학
1937년	대전 제일공립 보통학교 졸업	1955년	주월 전기전문 공업학교 교장
1939년	부모와 함께 원산으로 이사, 원산 석유공장에서 노동에 종사.	1956년	남으로 내려옴
1943년	항일운동 관련 검거. 김천소년형무소에서 3년 복 역, 해방과 함께 출소.	1957년 7월	대전서 체포, 15년 선고
1945년	평양학원에서 교육을 받음.	1972년 8월 24일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석방
1946년	강원도 도보안대 대장	1975년 3월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비전향을 이유로 청주 보안감호소 수감
1947년	이명숙 님과 혼인(슬하에 아들 금활, 금충렬 두 남)	1989년 8월 8일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풀려남
		1998년 6월 2일	체장암으로 보라매 병원에 입원
		1998년 8월 17일	14시 18분 별세(당 78세)

꿈에도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날아 가시려는지요

임은영(회원, 30세)

그리운 선생님.

조용한 찻집의 한 모퉁이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며 추위를 녹이던 91년 겨울,

선생님과 저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연세에 비해 뛰어나 건강하고 점점하셨고 호탕하신 성품은 젊은 날의 기상을 짐작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지요.

31년의 투옥생활 후 89년 사회안전법 폐지로 석방되신 후 인천양로원을 거쳐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시던 선생님은 저희와의 만남을 무척 기뻐해주셨고 딸처럼, 손녀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선생님과 저희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학교 앞 찻집, 술집, 선생님의 반지하 조그마한 방. 이곳저곳에서

인연을 키웠던 그해 겨울, 선생님께도 따스한 겨울이셨던가요? 저희처럼...

친구들끼리 서로 선생님 옆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거리를 걸을 땐 다투어 팔짱끼고 손잡으려고

장난기 어린 투정 부릴 때면 언제나 “허허허” 넉넉한 웃음으로 지켜보시던 우리들의 장군 할아버지, 금재성 선생님.

선생님과 제가 함께 꾸몄던 북아현동의 작은집.

제가 먹어봐도 별로 맛없는 국과 반찬을 한그릇 거듭히 비우시고 “정말 맛있다”고 하시던 선생님.

그때가 한없이 그리워집니다. 모임이다 뭐다 해서 한 번씩 늦을 때 조바심 내면서 집에 들어가면 평소 같으면

벌써 꺼져 있어야 할 선생님 방엔 여직 불빛이 문틈새로 새어 나오고 선생님의 걱정하시는 마음이 함께 남습니다.

힘든 노동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끗끗이 생활전선을 지켜오시며 담당하셨던 선생님께

세월의 힘이 그리도 커던 걸까요. 지독한 병마는 선생님의 존귀한 육신을 저희에게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선생님의 평생 소망은 아직 풀리지 않은채 그대로인데,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가슴에 품은 채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이 조국산하에 뿐린 통일의 씨앗이 이제 키워져 통일로 가는 길목이 가까워지고 있다고들 하는데,

선생님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 길 위에서 이야기하고 춤추고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의 혼백과 자취나마 저희가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늘 저희와 이별하시면 철책선 너머 꿈에도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날아 가시려는지요.

31년 감옥생활과 10년의 더 큰 감옥생활에서 벗어나 훨훨 나는 자유새가 되어 날아가시려는지요.

선생님, 이제 이곳의 무거운 짐 저희에게 남겨두시고, 분단의 고통없고 이산 슬픔없고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도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선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가슴에 담고서

저희에게 주셨던 가르침으로 내일을 지켜가겠습니다.

1998년 8월 19일 선생님의 딸 은영 드립

- '이화여대 간호학과 87모임' 회원인 임은영 님은 91년 금재성 선생님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약 2년동안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등 지극한 후원을 해왔다.

이달의

인권법률상식

근로기준법-①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지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 제23조) 그런데 이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도 유효하고 그 기간내

에 사용자가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을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법 제 24조)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별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때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지축하거나 저축금을 관리할 수 없고, 만약 근로자의 위탁을 받아 저축금을 관리할 때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29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별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정 (변호사·자하연법무법인)

- 1 - 민가협 운영위원회, 양심수 석방 총력사업 등 검토. 인권협 4 차 상임대표 민가협에서 맡기로.
- 박상천 법무부 장관, 사상전향제 폐지와 준법서약제 도입 대 통령에 보고.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준법서약제 반대 공동성명.
- 2 - 민가협 235회 목요집회. 준법서약제도 반대 집회. 강용주씨의 편지낭송, 42년을 복역하고 풀려난 안학섭 씨 사례. 가극단 금강의 공연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아대 졸업생 지은주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조서 내용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피고들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며 간첩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판결.
- 3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승하 부장판사), 87년 잠적한 고 문경관 이근안의 소재를 탐지하라고 경찰에 명령. 민가협 회원들 재정신청 2차심문 방청.
-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부산지하철 노조원 508명 무더기 연행
- 4 -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추진본부' 결성식
 - 7·4 남북공동성명 26돌 기념 토론회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실현을 위하여"(평통사, 4월혁명연구회 등 공동주최 / 동국대학원관 소강당)
 - 범민련, 한양대에서 7·4 남북공동성명 26돌 기념대회.
- 5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신부), 명동 기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 6 - 민가협 236회 목요집회. '조사간첩 사건 피해자 석방'을 주제로 힘주명(68세 · 83년 구속 · 이근안에게 45일동안 불법고문 수사 당함 · 광주교도소 수감중) 사례를 누이 힘주옥씨가, 석 달윤(68세 · 80년 구속 · 47일간 불법 고문수사당함 · 전주교도소 수감중) 사례를 아들 석권호씨가, 조점순씨가 동생 조상록(53세 · 78년 구속 · 일본유학생 · 안동교도소 수감중) 사례 발표와 석방 호소. 가극단 금강 공연
- 민가협 회원들 장안동 대공분실 앞에서 한양대 총학생회장 등 학생들 강제연행 항의
- 보라매병원으로 금재성 선생님 문병
- '고 양승근 전경 양심선언 11주년 기념 및 양심선언 군 · 경 명 예회복을 위한 목요기도회'(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주최 / 기독교회관)
- 10 - '8·15민족통일 대축전의 성사를 위한 각계인사 기자회견'(전국연합 주최 / 명동성당)
- 12 - 생존권 사수 전국 노동자 총력 투쟁결의대회(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동주최 / 여의도 한강 둑치)
- 13 -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 등 14개 종교, 인권단체들 합동기자회견.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준법서약서의 재고를 촉구.
- 양심수후원회 7월 운영위원회, 양심수석방 8월캠페인, 무연고 출소선생님 김 마린 사업 등 협의
- 14 -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신창균, 이기형 시인 의 각계원로 9명과 민가협, 전국연합, 평통사, 민노총, 참여연대, 작가회의, 민자통, 민교협, 4월혁명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유가협, 민변, 불교계등 각계 대표 31명과 회원들 참여/향린교회). 양심수 전원석방, 사면 · 복권, 재판중인 양심수 공소취하, 준법서약철회, 한총련, 범민련 진보단체 등 이적규정 철회, 수배해제 등 요구
 - 전주 고백교회(담임목사 한상렬)에서 '양심수기족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 행사를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 15 - 민주노총 산하 19개 공공부문 노조 6만여명 파업 돌입
 -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요구하며 6월 22일부터 단식을 한 강위원(광주교도소 수감중) 한총련 5기 의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감
- 16 - 민가협 제237회 목요집회. 헌법제정 50주년 기념 "악법의 회생자 양심수 석방과 헌법위배 법률 철폐촉구 집회".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를 차정원(92년 구속된 장창호씨 부인, 남편의 전력을 문제삼아 교사임용이 거부됨,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임용거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씨가 발표,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해사례를 장기수 합세환씨가 발표했으며 가극단 금강이 헌법에도 위배되는 악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퍼포먼스.
 - '8·15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시민단체, 정당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조선호텔 코스모스 흘)
 -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148명에게 준법서약 받은 후 복직시킨다고 발표.
 - 실천불교승가회 등 불교계 인사들,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 이른바 남한조선노동사건으로 복역중인 황인오씨 어머니 전재순씨가 '국가보안법 10조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침해' 라며 낸 헌법 소원에 합헌결정을 내리다
- 18 - 광주교도소로 강위원(5기 한총련 의장) 학생, 김낙중 선생 면회.
 - 광주 빛고을 탕제원 방문. 김인서 선생님은 반신운동장에 상태로 몸이 불편하심. 지난 6월 국제인권단체와 법률가들 초청으로 빠리에 온 들째딸 김성심씨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다 함.
- 20 - 민가협,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거리캠페인 1일째(서울역)
 - 민가협 운영위원회. 양심수 전원석방운동에 대해 협의
 - 혜명 양로원으로 임병호 선생님 방문
 - 보라매 병원으로 금재성 선생님 문병.
- 21 - 양심수 전원석방 거리캠페인 2일째(서울역)
 - '8·15 대축전 성사와 민족민주운동의 공동대응을 위한 토론회'(기독교회관/전국연합 주관)
- 22 - 양심수 전원석방 거리캠페인 3일째(명동 상업은행앞)
 - 부산지방경찰청,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부산, 울산 지역 노동, 사회단체 활동가 20여명 무더기 연행
 - 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주관 '인권관련 단체 초청 간담회'(여의도 관광호텔)
 - 경찰청,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 의장 김봉태씨등 간부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23 - 민가협 238회 목요집회. 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여성양심수 석방' 특별집회. 조영숙 여연 정책실장의 12명 여성양심수 전원석방 연설, 변의숙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낭송, 안민청 사건으로 엄마(정경희) 아빠(정종권)가 모두 구속된 산하(24개월) 이야기, 안윤정(독일유학생, 3년6월형 복역하고 만기출소)씨 여성양심수의 감옥실태 중언. 가극단 금강 공연
 - 양심수 전원석방 거리캠페인 4일째(탑골공원 앞)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 고영복 서울대교수 항소심에서 '간첩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회합·통신죄만 적용, 징역 2년 선고
 - 부산지방경찰청, 김창현 울산시 동구청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 24 - 양심수 전원석방 거리캠페인 5일째(명동 상업은행앞)
 -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김승훈 신부 등 145명이 국가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군보안사(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찰대상자들에게 각각 2백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
- 25 - 양심수 전원석방 거리캠페인 6일째(서울역)
 - 고 박순덕 열사 1주기 추모대회(전철연 주최 / 청량리역 광장)
- 27 - 양심수 전원석방 거리캠페인 7일째(서울역)
- 28 - 양심수 전원석방 거리캠페인 8일째(서울역)
 -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토론회'(민가협, 민교협,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KNCC인권위 공동주최 / 기독교연합회관 4층강당). 정병구(정치평론가)씨의 사회로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 김훈 국민일보 부주필, 이석태 변호사, 박병섭 상지대 교수, 박영관 법무부 3과장이 토론에 나서다.
-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 학생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확정 판결
- 29 - 양심수 석방 거리 캠페인 9일째(서울역)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김대중 대통령에 "양심수 전원석방" 탄원
- 30 - 민가협 239회 목요집회. 15척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오고간 편지집회. 장빈 목사의 사회로 차정원씨가 남편(장창호)에게 보내는 편지, 박영희(시인, 92년 구속)씨 편지, 김성만 씨 어머니 최인화 님이 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변의숙씨가 어머니 이윤옥님에게 보내는 편지 낭송(임수경 낭독), 최미소양이 할아버지 김태룡(79년 구속)씨에게 보내는 편지, 김동기(66년 구속)씨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 낭송.
 - 양심수 전원석방 거리캠페인 10일째(탑골공원)
 -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집회(전자주민



카드 시행반대 공동대책위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홍근수 대표외) 주최, “양심수 석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재야 원로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향린교회)
- 부산 울산지역 공안 조작사건 대책위원회 결성과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향린교회)
- 31 - 양심수 전원석방 거리캠페인 11일째(명동 상업은행앞)
- 고 주명순(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선생님 49제(구파발 진판사)
- 낙성대 만남의 집과 무연고 출소 선생님들께 지원금 드림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보내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용주 등 안동교도소 양심수 50,000
김용수 300,000
권오현 100,000
미국 이정연 25달러

북녘동포돕기 성금 계좌는 계속 열려있습니다.
제일은행 159-10-001411 권오현양심수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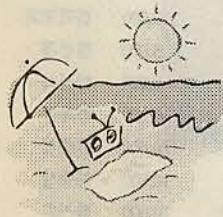


“국가보안법 제7조
적용 사건 자료를 보내주세요”

사건 피해자, 가족 그리고 단체별로 가지고 계신
국가보안법 사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제7조(찬양·고무 등)의 적용사례로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국가보안법 남용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삭제 또는 개정운동을 추진하려 합니다.

- 보내실 내용 : 1991년 5월 31일 개정이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적용 사건에 대한 판결문과 공소장, 구속·압수영장 등 법적 자료와 관련 성명서 등의 자료
- 보내실 기간 : 1998년 9월 30일까지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741-5363)

'98 회원 여름수련회



반년을 뜨겁게 살아온 민가협 어머니들과 양심수후원회원,
그리고 8·15 석방자들과의 뜨거운 만남의 자리! '98 여름수련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98년 8월 29일(토) ~ 30일(일)
- 장소 :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국민관광단지 내 기찻길 산장(0356-84-0676)
- 회비 : 25,000원
- 준비할 것 : 세면도구, 필기도구, 긴팔옷, 손전등
- 모이는 곳 : 청량리역 광장 시계탑 아래
- 모이는 시간 : 98년 8월 29일(토) 오후 4시(기차로 출발하니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